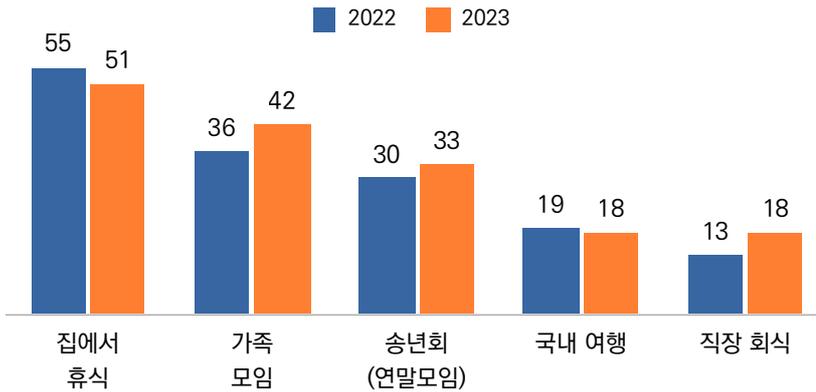




우리 국민의 연말 계획, 작년보다 ‘모임’과 ‘회식’ 늘어

- 2023년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 연말 계획 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. 올해 연말은 ‘집에서 휴식(51%)’을 취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, ‘가족 모임(42%)’, ‘송년회(33%)’ ‘직장 회식(18%)’ 등 각종 모임을 계획하는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했다. 특히 ‘가족 모임’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.

[그림] 올해 연말 계획 (일반 국민, 중복 응답, 상위 5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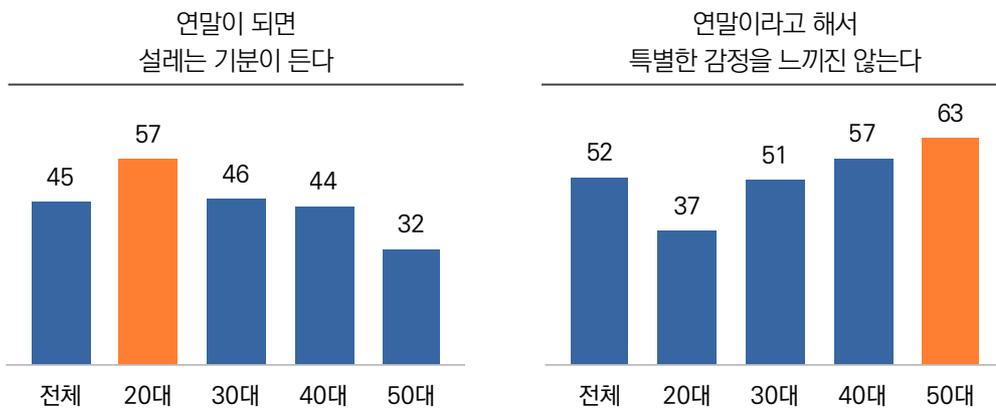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2023 연말 분위기 및 연말 계획 관련 조사’, 2023.12.08. (만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12.05.~12.07.)

◎ 연말 분위기 인식, 20대 ‘설렌다’ vs 50대 ‘특별하지 않다’!

- 우리 국민들에게 연말 분위기 인식 관련 진술문을 제시하고, 이에 대한 동의율(‘그렇다’)을 물었다. 그 결과, 전체적으로 ‘연말이 되면 설레는 기분이 든다(45%)’는 인식보다는 ‘특별한 감정을 느끼진 않는다(52%)’는 인식이 높았다.
- 이런 연말 분위기 체감도는 연령대별 인식 차이가 컸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‘연말이 되면 설레는 기분이 든다’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‘연말이라고 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진 않는다’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.

[그림] 연령별 체감하는 연말 분위기 인식 (일반 국민, 동의율**,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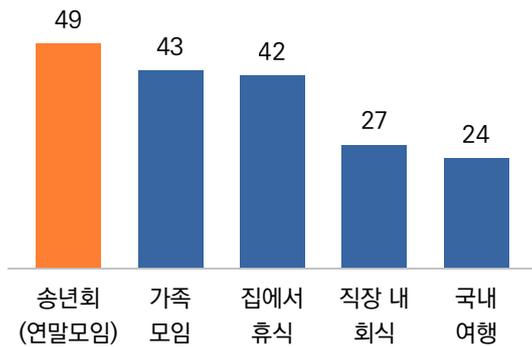
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‘2023 연말 분위기 및 연말 계획 관련 조사’, 2023.12.08. (만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12.05.~12.07.)

**2점 척도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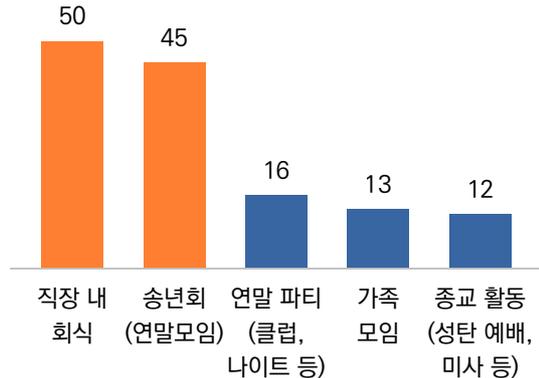
◎ 우리 국민 절반, '코로나로 송년회 안 해서 좋았다'

- ▶ 코로나 엔데믹으로 각종 모임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. 코로나 이전의 연말 활동과 코로나로 중단된 활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봤다. 코로나19 이전에 즐겨 했던 연말 활동으로는 '송년회'가 49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'가족 모임', '집에서 휴식' 등의 순이었다.
- ▶ '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어 좋았던 연말 활동'에 관해서는 '직장 내 회식(50%)'과 '송년회(45%)'가 각각 1, 2위를 차지했다. 응답자의 절반은 코로나로 인해 연말모임이 중단된 것이 오히려 좋았다고 응답한 것이다.

[그림] 코로나19 이전에 즐겨 했던 연말 활동 (일반 국민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

[그림]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어 좋았던 연말 활동 (일반 국민, 중복응답, 상위 5위,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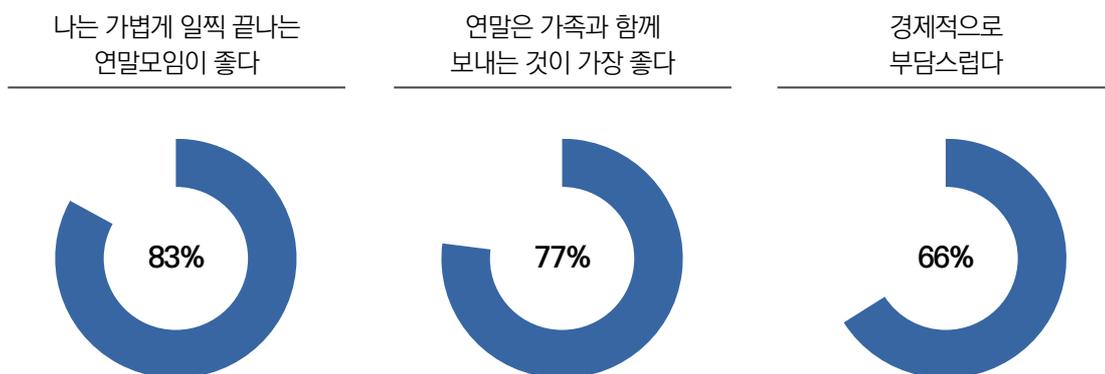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2023 연말 분위기 및 연말 계획 관련 조사', 2023.12.08. (만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12.05.~12.07.)

◎ 우리 국민 대부분, 연말모임 '가볍게 일찍 끝나는게 좋다'

- ▶ 연말모임 관련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, 각각의 동의율을 물었다. 우리 국민 대부분은 '가볍게 일찍 끝나는 연말모임을 선호(83%)'했고, '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이 가장 좋다(77%)'는 의견이 많았다. 또, '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'고 응답한 비율은 66%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이 연말모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[그림] 연말모임 관련 인식 (일반 국민, 동의율**)



*자료 출처 :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, '2023 연말 분위기 및 연말 계획 관련 조사', 2023.12.08. (만19~59세 남녀 1,000명, 온라인 조사, 2023.12.05.~12.07.)

**2점 척도임